

—— 綜合商社は 이렇게 생각한다 ——

原油供給過剩과

民間商社の 役割



吉 基 遠

(現代綜合商事・石油資源部長)

1. 序

우리 나라에서 石油가 日常生活에 이용되지는 십 수년에 불과하지만, 石油가 미치는 影響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특히 所要原油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는 우리로서는 經濟의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성장을 위해서는 石油의 安定確保가 무엇보다 중요한 必須課題의 하나이다.

「現在와 같이 供給過剩等으로 國際石油市場의 流通構造가 販賣者의 一방적인 獨占체에서 購買者의 立場이 다소 有利해진 購買者의 市場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여도 石油가 經濟와 安保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價置, 生産의 지역적인 偏在, OPEC이라는 강력한 카르텔의 存在等으로 現 OPEC의 市場장악은 容易하게 崩壞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供給過剩과 價格下落은 産油國은 물론 消費國에도 直・間接으로 政治 經濟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中東産油國의 大型 프로젝트에 깊이 參與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과급效果에 對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在 国内狀況은 73年의 第1次 石油波動, 1978~1979年 이란事態, 및 1980年 이란-이라크戰爭에서 派生된 2次 石油波動時 우리의 어려웠던 立場을 잇고 있는 傾向이 없지 않은듯 하며 國際石油市場에서 韓國의 위치를 再認識하여 供給過剩, 일시적인 수요부족 價格下落 및 경제불황 등을 헤쳐나가기 위한 長期 安定的이고 經濟性 있는 原油需給對策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려웠던 時期에 物量確保에 급급한 狀況下에서 原油導入 契約를 맺은 우리로서는 購買者의 立場이 強化된 現時點에서 契約條件, 經濟性(價格, 油種, 수송거리)을 改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原油導入에 따른 貿易收支 불균

형을 改善하기 위하여 産油國과 共同協力 방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이란事態, 이란-이라크戰爭에 따른 2次 石油波動의 위기에서 産油國의 直接去來 추세에 따라 物量의 安定確保 및 導入先 多邊化를 위하여 政府 및 精油會社는 勿論 民間商事가 政府의 정책적인 支援下에 原油導入에 참여하였고 특히 導入先 多邊化에 寄與한 바가 있다 하겠다.

民間商事가 차지하는 比重은 總契約物量中 20% 内外에 불과하지만, 原油去來가 購買者의 市場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原油導入에 따른 貿易收支 不均衡의 개선과 原油導入에서의 政治 外交的인 影響力의 縮小 측면에서 볼 때, 民間商事의 役割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고 보며, 現在와 같은 原油供給過剩이 長期間 지속되리라는 전망하에 国内外 石油市場의 現황을 살펴보고 石油去來에 있어서 民間商事가 기여할 수 있는 分野를 찾아보고자 한다.

2. 國際石油市場의 現황 및 展望

1) 現況

1, 2次 石油波動下에서 심각한 經濟危機를 맞았던 消費國은 代替에너지 開發, 非OPEC國家의 油田 開發 추진등으로 石油 依存度를 減少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産油國의 계속적인 高油價는 消費國의 경제성장을 鈍化, 沮害하여, 原油의 消費減少를 加速化하였다.

이란-이라크戰爭의 소강상태로 兩國의 生産量이 회복되자, 供給過剩 現상은 심화되었고, 雪上加霜으로 現物市場價格이 公示價格을 하회하자 일부 産油國은 프리미엄 廢止 및 公示價 引下, 輸出 物量의 増大를 꾀하였으나 OPEC 自体内의 相互不信과 異見만을 助長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OPEC는 지난해 11月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單一油價 體制로 복귀하고 OPEC 基準油인 사우디輕質油 價格을 배럴當 34달러로 他 産油国 原油價格의 下向調整에 합의하였으나, 北아 프리카産 輕質油와의 價格差가 너무 커서 成功的 施行에 問題의 여지가 있었다. 以後 일부 産油国 특히 이란 등은 輸出量 유지를 위하여 獨自的으로 公示價 引下를 단행하였고 供給過剩으로 公示價格은 現物市場價格을 4~7달러 정도 下廻하였다.

기존 고객의 維持를 위하여 英國은 北海産原油 販賣價格을 배럴當 31달러선으로 引下하여 同質의 北아프리카 原油에 타격을 주었다.

지난 3月 18~19日, OPEC은 또 한차례의 臨時 總會를 열고 公示價維持 對策을 수립, OPEC 總 生産量을 제한하고, 會員国別로 生産物量을 割當하는 生産쿼터제를 實施하였고, 또한 油種間의 價格 差를 배럴當 3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調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현상은 해 소되지 않고 있다.

2) 消費国 動向

① 産油国과의 協力 增進

2차례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消費国은 原油가 언제, 어디서나 必要時 確保할 수 있는 商品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産油国과의 協力體制 構築에 노력하여 왔다.

(가) 武器供給 및 地域安保支援 - 産油国은 대부분 王政 혼은 獨裁國家로 内外政情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體制維持에 필요한 地域安保와 武器確保에 주력하였고, 先進諸消費国은 産油国의 政權 과 이러한 차원에서 結束을 도모하여 石油安定確保에 노력하였다.

(나) 經濟 技術 協力 - 産油国들은 低開發 국가로서 石油收入 이외에는 별다른 資源이 없는 상태이고, 蓄積되는 油일·머니로서 石油資源의 枯涸과 有限한 석유자원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意欲的인 經濟發展計劃을 수립하였고, 産業의 高度化에 필요한 技術導入 및 合作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原油供給 契約 등으로 石油資源을 활용하고 있다.

② 消費国의 高油價 對策

繼續되는 産油国의 高油價體制下에서 消費国은 石炭, 原子力 등과 비교하여 石油가 低廉한 能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對應策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相當한 結實을 보이고 있다.

(가) 에너지 消費 節約

(나) 石炭, 原子力, 天然가스 등 代替에너지로 的 轉換.

(다) 非 OPEC 國家의 油田開發, 특히 自然環境이 不利한 알라스카 北海 등의 開發 추진

(라) 産油国에서의 돌발사태에 對備한 備蓄추진.

③ 展望

現在와 같은 不確實性時代에 非常事態, 國際政治 情勢 變化, 談合 등 여러가지 要因에 따라 時間마다 變하는 國際 石油情勢下에서 國際石油市場을 展望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OPEC의 과감한 生産 쿼터制 實施, 大幅的인 價格引下에 의한 消費国의 需要 촉발 및 中東等地에서 전쟁 등 突發事態가 없는한 現在와 같은 供給過剩과 상대적인 價格下落은 당분간 繼續될 것이라는 견해가 優勢하다. 原油市場 展望에 대한 전문가들의 意見 및 뉴스 報道 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가) 價格: 85年度의 原油價格은 現在의 基準油價 배럴當 34달러를 하회하거나 상회한다 하여도 인플레이션을 勘案하면 實質價格은 하회할 것이다.

(나) “消費国의 動向”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消費国의 高油價 對策, 經濟成長 鈍化, 이란-이라크의 和解에 의한 增産 등의 理油로 현재보다 供給過剩幅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 購買者의 立場 強化 및 物物交換 방식의 原油 去來增加: 産油国은 資源 부족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지연 중단하거나 商品輸入 및 工事代錢을 原油로 결제하지 않을 수 없는 事態가 올 것이며 消費国은 原油輸入에 따른 貿易逆調를 개선기 위하여 産油国에 商品輸出,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라) 現物市場 去來量 增大: 高價의 公示價基準의 長期契約를 廢棄하는 傾向이 많아질 것이다.

3. 韓國의 原油導入

1) 메이저의 合作 精油工場 建設 및 原油供給 經濟開發 추진을 위한 基幹産業으로서의 최초의 精油事業은 資本, 技術 및 經驗 등이 前無한 상태이어서 메이저의 市場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原油供給도 100% 메이저에 依存하는 不平等契約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以後 메이저 또는 獨立系 石油会社와 國內 民間 会社와의 合作 提携로 2개의 精油工場이 建設되었으나 原油導入은 전부 合作線인 메이저나 獨立系 石

油会社に 依存하게 된다.

2) 直去來 導入 및 供給先 多邊化

78年末 이란 事態 이후 世界的인 物量不足 등의 狀況下에서 産油國이 메이저를 통한 原油販賣를 支양하고 消費國과 直接 去來하고자 하는 政策에 따라 일부 精油會社의 메이저原油供給이 削減되었다. 政府의 直去來 原油 確保를 위한 外交的인 노력으로 79年 政府間 原油導入契約이 結實을 보았고, 일부 民間商事가 産油國에서 수년간 攄은 基盤으로 直去來(D-D베이스) 原油 契約이 成事 되었다.

특히 이때 中東의 3~4個國에 偏重되었던 原油供給先이 東南아시아, 中南美 및 아프리카로 多邊化되어 政府의 長期 安定確保를 위한 「原油供給先 多邊化 政策」뿐만 아니라 公害防止를 위한 低硫黃 原油 確保에도 寄與한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國際 石油메이저나 일부 仲介商의 先유물로 터부視되던 石油去來에 우리가 直接參與하는 契機를 마련하였음은 勿論 原油導入을 통하여 産油國과의 經濟, 政治, 外交的인 유대關係를 強化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政府는 물론 精油社, 民間商事들이 原油去來의 경험, 상거래실적, 攄후 交涉能力等을 쌓을 수 있었다.

3) 現況 및 問題點

現在 우리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하여 12個國에서 原油를 導入하여 供給先 多邊化를 이룩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物量面에서 中東依存度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表 1) 契約 形態別 原油導入 現況 (1981. 10)

형태별 구분	메이저 및 독립계석유회사	정부간 계약	精油會社 直 도입(D-D)	民間會社 仲介도입	합계
도입 計 (千배럴 / 일)	246	165	50	115	576
(구성비 %)	42.7	28.6	8.7	20.0	100

위 <表>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메이저를 통한 原油導入은 42.7%에 달하여 가장 높고 政府間 契約이 28.6%, 精油會社 直導入分 8.7%, 民間商事 仲介 導入分은 20.0%에 불과하다.

4) 民間商事의 役割 및 參與方向

原油의 유통과정에서 國際 石油 메이저의 影響이 減少되고, 産油國이 消費國과 直接 去來하려는 傾向에 따라 産油國과의 政治, 經濟, 外交的인 資源協力關係, 安保支援 및 武器供給, 産油國에의 技術協力 및 直接投資 등이 原油安定確保의 主要한 수

단이 되고 있으나, 供給過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리라는 展望이 지배적인 狀況에서 國際 石油市場은 購買者市場으로 전환되어 일반적인 商去來에서의 패턴이 적용될 수 있는 可能性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原油가 전략적 商品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으나, 이러한 시장여건의 變動추세에 따라 原油導入에 있어 精油會社나 民間商事 役割이 더욱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長期的인 측면에서 볼때, 油田開發에 의한 原油確保等 民間商事의 役割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國際 石油去來商으로 육성하여 國益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우리보다 먼저 石油産業 分野에 진출한 日本 綜合商事의 役割을 檢討하고 우리 民間商事의 참여 방향을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1) 日本 綜合商事 現황 및 石油企業과의 提携

日本은 메이저의 影響力 減少와 産油國의 정책적 선호에 따라 直去來가 확대 되어 왔고 또한 産油國의 油田 開發에도 官民合同으로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政府, 精油會社의 直去來 확대의 노력과 並行하여 日本商事는 그들의 全世界的인 情報조직, 商去來를 통한 攄후 交涉能力, 기타 綜合商事의 포괄적인 商去來能力等을 발휘하여 原油確保에 主要한 役割을 하여 日本 독자적인 原油調達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일본 原油供給의 3분의 1을 擔當하고 있다.

① 長期 安定確保 및 自國利益의 極大化

歐美諸國과 같이 軍事援助, 武器·식량 供給 등 전략적인 交涉수단을 活用할 수 없는 日本은 政府의 정책적인 支援(外交, 經濟), 및 石油企業과의 提携下에 商事を 淸병으로 産油國에 대한 經濟協力을 積極적으로 추진, 原油 調達能力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여 좋은 結果를 가져왔다. 이러한 經濟協力の 패턴은, ▲ 交涉, 情報能力, 商去來, 技術協力等에 의한 直輸入量 增大 ▲ 産油國의 油田開發에 직접 참여하여 지분율에 따라 開發輸入, ▲ 油田開發 및 石油관련 Infrastructure에 차관을 공여하고, 原油로 償還받는 형태 (Indonesia 油田開發에 Advanced payment 形態로 借款공여, 멕시코 및 페루의 淸유관 建設에 借款공여) ▲ 産油國 經濟開發 大型 프로젝트에 參與하고 Incentive로 原油를 供給받는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合作 methanol plant 建設) ▲ 産油國의 商品輸入과 原油 購入과의 BARTER 去來.

이러한 經濟協力 추진 過程에서 商事는 產油國에의 플랜트 輸出, 建設工事 參與等으로 利益의 極大化를 도모하고 있다.

日本商事들은 商事間의 提携, 이들과 石油企業과의 협동을 통하여 石油관련 프로젝트의 大型化에 대처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隨伴되는 財源을 分擔調達하고 예상되는 危檢을 分散하고 있다.

② 現物市場 去來에의 참여

自國의 長期安定的인 石油資源 確保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培養된 石油情報 및 流通網, 石油 去來能力을 활용하여 原油는 물론 石油製品의 제 3國間 去來에도 착실히 침투하여 많은 實績을 올리고 있으며, 韓國의 石油製品 輸出入에도 대부분 參與, 새로운 國際 石油去來商으로 부각되고 있다.

2) 民間商社의 나아갈 길

國內에 綜合貿易商事制度가 導入된지 7年에 불과하지만, 우리 나라의 輸出窓으로서 國際市場에서 그 基盤을 굳혀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原油 去來가 통상적인 市場메커니즘으로 轉換되는 時點에서 石油去來도 사업영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日本 商事의 機能 및 役割에서 보아 왔듯이, 商事의 情報力, 交渉力, 商去來 能力등을 살려 民間商事는 石油 去來에서도 주요한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며, 長期的 안목에서 精油会社와의 긴밀한 協助 및 政府의 制度的인 支援下에 育成되어야 할 것이다.

民間商事는 石油去來에서 다음과 같은 分野에서 그 役割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존 契約條件의 改善

대부분의 原油契約은 原油供給이 불안한 시기에 時期에 맺어진 것이므로 國際 石油市場과 國內實情을 반영하여 價格, 油種 等은 물론, 其他 契約條件을 改善하여 국내 石油製品 價格自律化 等 國內外 여건 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② 產油國과의 交易의 확대 :

供給過剩 및 價格下落時 原油의 導入은 產油國에 대하여 他 商品去來에 Bargaining power로 利用, 產油國의 商品輸入, 建設工事 참여등에서 우선적인 배려로 要求할 수 있을 것이며, 原油導入을 통하여 產油國 人士와의 協力 關係를 活用하여 商品輸出을 極大化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海外 油田開發의 推進 :

現在와 같이 供給過剩으로 油田開發이 不利한 件에서 韓國이 有望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機會로 간주되나 막대한 投資費, 危檢度, 技術의 不足等을 考慮하여 韓國石油開發公社를 주축으로 民間商事, 精油会社가 合作投資하여 參與하여야 할 것이며, 石油開發基金制度의 確立, 稅制감면 등 政策的인 支援對策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液化天然가스(LPG) 導入에도 단순한 에너지의 導入 次元을 떠나서 開發輸入 형태로 推進, 기자재 供給, 수송선 건조, 建設參與等 종합적인 利益極大化 方案을 초기단계부터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分野에 專門技術者가 거의 育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技術者 양성을 위하여 海外연수 및 現場 派遣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④ 石油製品의 輸出入 :

油種에 따라 製品 收率이 需要패턴에 맞지 않고, 또는 季節的으로 需要가 變動하는 製品은 一部 輸出入으로 需給調節機能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重質 溜分의 脫黃施設이나 分解施設이 없는 實情下에서는 製品의 輸出入은 不可避 하다고 본다.

또한 石油類 製品價格 自律化가 실시될때 精油 工場의 收益性 提高를 위해서 잉여高價品目 輸出 및 不足 低價品目の 輸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供給過剩, 不足等으로 國際石油市場이 不安, 변동이 심할 때를 考慮하여 自社 利益極大化만을 피하는 日本의 綜合商事나 國際石油商의 利益보다는 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世界各處의 支社網을 통하여 情報를 入手, 分析, 判斷하여 輸出入을 擔當할 專門 民間商事들의 육성이 요망된다.

한편 國內 精油工場의 정제능력이 需要를 훨씬 凌駕하여 시설이 遊休化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탁가공等을 통하여 效果의인 活用方案을 講究하여 할 것이다.

⑤ 船舶用 海上급유 :

우리 나라 輸出 物量의 增大에 따라 국적선 선복량도 大幅增加하여 世界 주요港口에 運航하고 있으며, 이때 國內外에서 給油하는 燃料量은 年300만톤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日本商事, 石油메이저, 國際石油商 等에 의하여 給油되고 있다. 차질없는 給油를 위하여도 國內民間商事가 이 分野에 눈을 돌려 自社가 備船, 利用하는 船舶만이 아니라 給油를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民間商事가 開拓 하여야 할 分野는 너무 많다. 이는 民間商事 독자적으로 이룩하기 어려운 課題라 보며 精油会社의 적극적인 후원과 政府의 政策的 支援, 指導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